

# 2022학년도 모의논술고사[인문·체육계]

## 1. 2022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예시답안

<논제 I>

제시문 [가], [나], [다]는 보편주의와 특수주의의 관점에서 여러 상황을 다루고 있다. 먼저 [다]는 근대윤리학이 전제하는 합리적 행위 주체가 어떻게 이기주의를 벗어나 객관성을 갖추는지 언급한다. 도덕적 이성의 핵심은 불편부당성이고, 도덕적 주체는 상황의 개별 특수성에 얽매이지 않는 객관적 위치를 확보함으로써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는 이러한 판단이 타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이해관계나 가치지향 등을 배제한 ‘초월적 관점’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한편 [가]는 종교와 관습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슬람 사회의 명예살인과 투석 처벌이 개인, 특히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폭력임을 지적한다. 이는 문화에 대한 상대주의적이고 특수주의적인 관점이 지닌 문제점을 드러냄으로써 보편주의 입장을 옹호한다. 따라서 [다]의 시각에서 [가]의 상황은 문화적·종교적 특수성을 용인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고, ‘가족’과 ‘생명’이라는 보편적 가치마저 무시하고 부정하게 하는 부정적 사례로 보일 것이다. 문화에 대한 특수주의 관점을 긍정하면 잘못된 관습을 옹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인륜’과 ‘예의’라는 유교적인 가치가 보편적으로 여겨졌던 전근대 사회에서 유교적 가치가 사대부집 여성에게 고된 가사노동과 생계유지라는 이중적 고통으로 작용했음을 드러낸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숭상되던 가치가 남녀 성별에 따라 차별적인 삶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의 시각에서 [나]의 상황은 특정 사회나 시대에 보편적이던 도덕도 가치지향을 벗어난 초월적 상황에서 외부적 입장에서 판단하면 보편적 도덕성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850자)

<논제 II>의 예시 답안은 자유주의적 정의관(제시문 [라]와 [바])을 선택하여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제시문 [마]와 [사])을 비판한 경우와 반대로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선택하여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비판한 경우의 두 가지로 제시한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선택하여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비판한 경우>

제시문 [라], [마], [바], [사]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옹호하는 [라]와 [바],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입장에 있는 [마]와 [사]로 구분할 수 있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입장이다. [라]의 내부 고발 사례는 소속 집단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 공동체의 불법이나 부정부패 고발이 청렴사회로의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바]는 백신 개발에 성공한 개별 제약회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것을 옹호한다. 특허권 유지를 통해 제약회사에 이윤을 보상함으로써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하고 더 많은 양의 백신을 공급하여 보건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정의관 입장에서 제시문 [마]와 [사]는 다음과 같이 비판할 수 있다. [마]는 국가 채무를 갚지 않으면 국가가 무너지기 때문에 보상 모금에 참여할 것을 격려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채무의 증가는 부정부패나 예산 낭비 등을 감시할 내부 고발이 어려워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국채 보상이 황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 모금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 [사]의 경우 지나친 개인의 권리 추구가 이기적 개인주의를 낳아 공동체의 존립과 발전을 저해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무시하거나 약화시킨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공동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강제하는 비민주적 공동체는 발전할 수 없다. 또한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을 보장하는 것이 좁은 이익 공동체의 부정부패를 방지하여 보다 넓은 공동체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850자)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선택하여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비판한 경우>

제시문 [라], [마], [바], [사]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옹호하는 [라]와 [바], 그리고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입장에 있는 [마]와 [사]로 구분할 수 있다.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하고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시각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는 지나친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은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고 공동체의 존립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제한되어야 하며, 개인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라도 공공선의 추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는 국가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개인이 금전적 손실을 보더라도 국가 채무의 보상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국가 공동체를 보존하는 길이라 주장한다.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입장에서 제시문 [라]와 [바]는 다음과 같이 비판할 수 있다. [라]는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근거한 내부 고발이 더 넓은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내부 고발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면 조직이나 집단 내 신뢰가 무너지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예산 낭비로 취급되는 것에는 공동체의 안전유지 같은 중요한 목적 달성에 꼭 필요해 조직 내 소수에게만 공유되고 대외에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내부 고발로 이것이 공개되면 해당 조직은 제대로 기능할 수 없고 사회 전체에 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바]는 지적재산권을 통해 이윤추구 동기를 제공해야 제약회사가 더 나은 백신을 개발하고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특허권을 면제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 많은 제약회사가 더 효과적인 백신 개발과 공급이 가능해진다. 이는 인류 공동체에 위협이 되는 보건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이다. (850자)

2. 2022학년도 모의논술고사문항 해설(출제범위 포함)

본 논술고사에서는 경희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의 정형적 패턴에 따른 <논제 I>과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한 <논제 II>를 출제하였다. 문제는 현 고등학교 교과서 『문학』, 『통합사회』의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영역 등에 등장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되었다. 각각의 제시문 출전은 다음과 같다.

제시문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재구성 여부
[가]	『경향신문』 (「코란에 없는 명예살인 탓 죽어 가는 무슬림 여인들」)	정유진	경향신문	2014 (5월28일)	인터넷 기사	X
[나]	『고등학교 문학』 (「허생의 처」)	이남희	지학사	2019	120~121	X
[다]	『차이의 정치와 정의』	아이리스 매리언 영	모드북	2017		O
[라]	『프레스리안』 (「내부고발자 보호,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지문	프레스리안	2018 (1월2일)	인터넷 기사	O
[마]	『대한매일신보』 (「국채 1300만원 보상 취지서」)		대한매일신보	1907 (2월21일)	우리역사넷 누리집	X
[바]	『매거진 환경』 (「미국은 포기, 유럽은 반발... 코로나19 백신 특허의 운명은」)		매거진 환경	2021 (5월16일)	인터넷 기사	O
[사]	『코로나19 데카메론-코로나19가 묻고 의료인문학이 답하다』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 통합의료인문학연구원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2020	134-135, 139	O

각 제시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가]는 『경향신문』에서 발췌하였다. 제시문은 이슬람 문화권에 잔존하고 있는 명예살인과 투석형의 문제점을 보여줌으로써 불합리하고 폭력적인 제도들이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옹호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제시문은 결혼과 사랑에 대한 개인의 결정권이 존중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소중함이라는 가치도 용인하지 않는 이슬람 문화의 폭력성을 통해 문화에 대한 특수주의적 관점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여준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서 발췌하였다. 제시문에서 남편이 강조하고 있는 ‘인륜’과 ‘예의’는 중세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간주되던 것들이다. 하지만 허생의 처는 그러한 중세사회의 가치가 여성에 대한 이중적 억압, 즉 가정일과 생계 모두를 여성이 책임져야 하는 현실을 외면한 상태에서 여성에게 강요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허생의 처의 이러한 주장은 ‘인륜’과 ‘예의’라는 중세의 보편적 가치가 보편이 아니라 남성의 전유물, 즉 특수임을 폭로함으로써 불편부당한 초월적 도덕성에 이르지 못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제시문 [다]는 『차이의 정치와 정의』에서 발췌하였다. 제시문은 근대윤리학이 전제하는 합리적 행위 주체가 어떻게 객관적 판단을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근대윤리학은 도덕적 이성의 핵심을 불편부당성에서 찾는다. 이는 도덕적 주체가 자신의 이익은 물론이고 상황의 개별 특수성에 얽매이지 않음으로써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상황의 특수성을 일절 고려하지 않는 이러한 주체는 인간적 감정이나 가치지향 등을 완전히 배제한 ‘초월적 관점’에 의해서만 성립될 수 있는데, 이는 감정이나 욕구를 이성으로부터 배제해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시문 [라]는 『프레이션』의 「내부고발자 보호,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는 인터넷 기사(<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81293#0DKU>)에서 발췌 및 수정하였다. 제시문은 조직이나 집단의 구성원이 해당 공동체의 불법, 부정부패나 예산 낭비와 같은 문제를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근거하여 고발하는 내부고발이 청렴 사회의 디딤돌 역할을 해 왔음을 주장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공동체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자유주의적 정의관 입장이다.

제시문 [마]는 『대한매일신보』의 「국채 1300만원 보상취지서」에서 발췌하였다. 자기 몸과 자기 집만 알 뿐 군주와 국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스스로 멸망하고 만다고 보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개인의 이해를 버리고 국채 보상 운동에 참여하여 강토를 지키고 국가의 존립 위기를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인의 이해보다 공공선의 가치를 우선시함으로써 개인 또한 자유와 권리를 더 잘 누릴 수 있다는 공동체주의적 정의론에 부합한다.

제시문 [바]는 『매거진 환경』의 「미국은 포기, 유럽은 반발...코로나19 백신 특허의 운명은」에서 발췌 및 수정 보완하였다. 백신 개발 회사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는 기업의 백신 개발과 물량 확대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백신 공급을 가능하게 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전지구적 공동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개별 회사의 자유로운 백신 개발 및 공급 결정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도모할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정의론을 지지하는 제시문이다.

제시문 [사]는 『코로나19 데카메론-코로나19가 묻고 의료인문학이 답하다』에서 발췌 및 재구성하였다. 이 제시문은 자유주의가 개인을 해방시키고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으나 지나친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으로 공동체의 존립과 발전을 저해하게 되었다고 본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동체적 유대, 공동체 구성원의 상호적 돌봄의 의무 및 참여를 강조하고 공공선을 우선시하는 공동체주의를 제시한다. 공공선의 증진과 공동체의 발전을 통해서만 개인의 권리가 증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논술고사 문항은 경희대학교 수시 논술의 전통적인 논제 유형을 수용한 [논제 I]과 새로운 유형으로 출제된 [논제 II]로 이루어져 있다.

<문제 I>은 제시문 [다]의 내용이 제시하는 관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 [나]에서 제시한 상황 또는 입장을 평가하는 문제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태도를 인문학적 시각에서 성찰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문제 II>는 그동안의 정형적인 유형에서 벗어나, 네 개의 제시문을 제시하고, 입장이 같은 두 집단으로 분류한 후 한 입장을 채택하여 그 입장을 요약하고 다른 입장을 비판하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다양한 제시문들을 동일한 시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 한 입장을 정하여 다른 입장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출제하였다.